

2027

수능 국어

5

일간의
문법
교습

리얼리스트 박광일



도서출판 홀수
Holsoo Publishers

구성과 특징

▶ **1 연계 교재 지문 요약하기**에서는 연계 교재의 지문 내용을 핵심 예문과 함께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지문 연계 출제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 **2 더 읽어 볼 만한 지문**에서는 평가원·교육청 기출 지문, 과년도 연계 교재 및 공신력 있는 문법 이문서에서 수능에 출제될 만한 주요 내용을 엄선하여 수록함으로써, 지문형 문제 풀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일간의 문법』은

- EBS 수능 연계 교재의 핵심 내용을 단 5일간의 학습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2027학년도 수능 국어 언어(문법) 영역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연계 교재 지문의 핵심 내용을 분석·정리하고, 수능에 출제될 만한 주요 내용을 엄선하여 수록함으로써 지문형 문제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복습용 확인 문항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고,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여 문법 실력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STEP 3 개념 완성 홀로서기



정답과 해설

STEP 3 개념 완성 홀로서기 정답과 해설 P.134

1 다음 설명이 적절하면 [O], 적절하지 않으면 [X]를 고르시오.

01. '말-랑'과 '말-일'은 '오', '오'에 의해 뜻이 구별되므로 최소 대립쌍에 해당한다. [O] [X]

02. '눈, 표, 숲, 총'의 음절 끝의 자음은 모두 예사소리에 해당한다. [O] [X]

03. '시, 너'는 문법적으로 이중 모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모음으로 발음되기도 한다. [O] [X]

04. 현대 국어의 음절 유형에서, 초성 또는 종성이 없는 음절도 있다. [O] [X]

05. 현대 국어의 음절 유형에서, 초성에는 최대 두 개의 자음이 올 수 있다. [O] [X]

06. 음절 끝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 발음된다. [O] [X]

2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단어들의 실제 발음과 적용된 음운 변동의 유형을 모두 쓰시오.

[보기] [정답] → [답안] 음운 변동의 유형: (첨가, 교체)

13. 낱말 → [] 음운 변동의 유형: ()

14. 낱말 → [] 음운 변동의 유형: ()

15. 낱말 → [] 음운 변동의 유형: ()

16. 낱말 → [] 음운 변동의 유형: ()

17. 낱말 → [] 음운 변동의 유형: ()

18. 낱말 → [] 음운 변동의 유형: ()

19. 낱말 → [] 음운 변동의 유형: ()

20. 낱말 → [] 음운 변동의 유형: ()

3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 안에 들어갈 음운 변동 현상과 그 유형을 쓰시오.

[보기] [정답] → [답안]

없다 → → (원소리가 / 교체) (자음군 단순화 / 탈락)

DAY 1 음운과 음운 변동 문제 P.134

01. [O]
'말-랑'은 음성의 'ㅇ'과 'ㅇ'에 의해 뜻이 구별되므로 최소 대립쌍에 해당하지만, '말-일'은 '말'의 첫음절 'ㅇ'이 음가가 없으므로 최소 대립쌍이 라고 볼 수 없다.
[X] 최소 대립쌍을 이루는 두 단어의 음운의 개수는 동일해야 하는데, 초성이 'ㅇ'은 첨가적으로 생긴 것으로 음운의 개수가 동일하지 않아 '말'과 '일'은 최소 대립쌍이라고 할 수 없다.

02. [O]
'눈, 표, 숲, 총'의 음절 끝의 자음은 각각 ㄴ, ㄷ, ㅁ, ㅇ으로, 이는 모두 예사소리에 해당한다. 국어의 자음 체계에서 예사소리는 연음음소리에 해당하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을 소리의 세기에 따라 나눈 것 중 하나므로, 'ㄴ, ㄷ, ㅁ, ㅂ, ㅅ'이 예사소리에 해당한다.

03. [X]
'시, 너'는 문법적으로 단모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04. [O]
음절은 한 번에 소리가 낼 수 있는 발음의 최소 단위로, 국어 음절의 구성은 '초성, 종성 + 종성, 종성 + 종성, 초성 + 종성 + 종성'으로 나눌 수 있다. 즉, 현대 국어의 음절 유형에는 '초성, 종성 + 종성'과 같이 초성이 없는 음절이 있고, '초성, 종성 + 종성'과 같이 초성이 있는 음절도 존재한다.

05. [O]
음절의 구성에서 처음 소리가 자음을 '초성, 중간 소리가 모음을 '종성, 마지막 소리가 자음을 '종성'이라고 한다. 음절의 초성에는 볼 이상의 자음이 포함될 수 없다.

06. [O]
음절 끝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7개 자음만 발음된다.
[X]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이외의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면 '박음'을 통해 발음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중 하나로 소리가 바뀌어 발음한다는 발음 7원칙에

07. [O]
현문은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할 때, 양 형태소의 발음이 뒤 형태소의 첫소리로 그대로 옮겨 가는 현상이고, 이는 음운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08. [O]
'단어'라는 어간의 발음 'ㄴ' 뒤에 형식 형태소 '-하-'가 결합되어 거센 소리가 뒤의 구두점을 없애고 단어가 된다.

09. [O]
'책'은 음성의 'ㅇ'과 'ㅇ'에 의해 뜻이 구별되므로 최소 대립쌍에 해당하지만, '말-일'은 '말'의 첫음절 'ㅇ'이 음가가 없으므로 최소 대립쌍이 라고 볼 수 없다.

10. [O]
'말'에서 발음되어 발음되지 않는 'ㅇ' 발음이 들어간 것이다.

11. [O]
'말'에서 발음되어 발음되지 않는 'ㅇ' 발음이 들어간 것이다.

12. [O]
'말'에서 발음되어 발음되지 않는 'ㅇ' 발음이 들어간 것이다.

▶ [O] [X] 문제와 빈칸 채우기 같은 간단한 확인 문항을 통해 각 DAY의 학습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고, 문법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수험생의 시선에서 궁금해할 만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해설하여, 문제를 풀고 난 뒤 관련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문항과 관련하여 꼭 알아 두어야 할 문법 지식은 **TIP**으로 함께 수록하여, 관련 개념을 보다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Contents

목차

DAY

1

음운과 음운 변동

STEP 1	연계 교재 개념 정리	P.008
STEP 2	지문형 문제 대비하기	P.018
STEP 3	개념 완성 홀로서기	P.024
	정답과 해설	P.134

DAY

2

형태소와 단어

STEP 1	연계 교재 개념 정리	P.028
STEP 2	지문형 문제 대비하기	P.050
STEP 3	개념 완성 홀로서기	P.060
	정답과 해설	P.136

DAY

3

문장 성분과 구조

STEP 1	연계 교재 개념 정리	P.064
STEP 2	지문형 문제 대비하기	P.078
STEP 3	개념 완성 홀로서기	P.080
	정답과 해설	P.138



문법 요소

STEP 1	연계 교재 개념 정리	P.084
STEP 2	지문형 문제 대비하기	P.097
STEP 3	개념 완성 홀로서기	P.102
	정답과 해설	P.140



담화, 국어의 역사

STEP 1	연계 교재 개념 정리	P.106
STEP 2	지문형 문제 대비하기	P.121
STEP 3	개념 완성 홀로서기	P.128
	정답과 해설	P.142

5일 간의 문법
5일 간의 문법
5일 간의 문법



음운과 음운 변동

STEP 1

연계 교재 개념 정리

1 음운과 음운 체계

(1) **음운**: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예** 가을-마을(ㄱ:ㅁ), 나-너(ㄴ:ㄷ)

(2) 음운의 종류

1) **분절 음운**: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는 음운으로, '음소'라고도 함. 자음, 모음, 반모음이 있음

2) **비분절 음운**: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지 않는 음운으로, '운소'라고도 함. 현대 국어 표준어에는 장단만이 비분절 음운임

예 눈[目]-눈[雪], 말[馬]-말[言]

↳ 국어의 장음은 원칙상 단어의 첫머리에만 올 수 있음 **예** 눈[눈:] 첫눈[천눈]

(3) 음운 체계

1) **자음 체계**: 말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 받는 위치인 조음 위치와, 말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을 막거나 흐르게 하는 방법인 조음 방법에 따라 분류됨

조음 방법 \ 조음 위치		양순음 (입술소리)	치조음 (잇몸소리)	경구개음 (센입천장소리)	연구개음 (여린입천장소리)	후음 (목청소리)
안울림 소리 (무성음)	파열음	평음(예사소리)	ㅍ	ㅌ		ㄱ
		경음(된소리)	ㅂ	ㄷ		ㄴ
		격음(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평음(예사소리)		ㅈ		
		경음(된소리)		ㅊ		
		격음(거센소리)		ㅉ		
	마찰음	평음(예사소리)	ㅅ			ㅎ
		경음(된소리)	ㅆ			
		격음(거센소리)				
울림소리 (유성음)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최소 대립쌍: 같은 자리에 오는 하나의 음운에 의해서만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쌍으로, 최소 대립쌍을 찾아 국어의 음운을 추출할 수 있음
예 간-강(ㄱ:ㅇ), 볼-돌(ㅂ:ㄷ), 문-묵(ㄴ:ㄱ), 땀-땡(ㅁ:ㅇ), 가을-마을(ㄱ:ㅁ), 나-너(ㄴ:ㄷ), 샘-숨(ㅅ:ㅇ)
- 최소 대립쌍을 이루는 두 단어의 음운 개수는 동일해야 함
예 눈꼬리-눈초리 (O), 짜다-파다 (O), (곤충) 잠자리[잠자리]-(이부자리) 잠자리[잠자리] (O) / 말-알 (X), 견인-연인 (X)
↳ ‘ㄱ, ㅍ’ 등과 같은 경음(된소리)의 음운의 개수는 1개이고, 초성의 ‘ㅇ’은 형식적으로 쓰인 것으로 음운의 개수에 포함되지 않음

2) 모음 체계: 혀의 최고점 위치, 혀의 높이, 입술 모양에 따라 분류됨

① 단모음: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모음

혀의 앞뒤 혀의 높낮이	입술 모양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ㅍ	ㅡ	ㅜ
중모음		ㅔ	ㅚ	ㅓ	ㅗ
저모음		ㅐ		ㅑ	

② 이중 모음: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짐

j-계 이중 모음	ㅟ, ㅢ, ㅙ, ㅞ, ㅝ, ㅞ, ㅟ, ㅠ
w-계 이중 모음	ㅡ, ㅣ, ㅤ, ㅥ

자음과 모음의 중간적 존재, 반모음

- 반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음과 비슷하나, 홀로 발음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음과 비슷함
- 반모음은 단모음과 결합하여 이중 모음을 이룸
예 ㅟ: 반모음 ‘j’와 단모음 ‘ㅜ’가 결합한 이중 모음
ㅚ: 반모음 ‘j’와 단모음 ‘ㅓ’가 결합한 이중 모음
ㅡ: 반모음 ‘w’와 단모음 ‘ㅑ’가 결합한 이중 모음
ㅣ: 반모음 ‘w’와 단모음 ‘ㅓ’가 결합한 이중 모음

- 표준 발음법 제4항에서는 원칙적으로 ‘ㅛ’, ‘ㅜ’를 단모음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실에서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 단모음 대신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함
- ‘ㅛ’와 ‘ㅜ’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경우 반모음 ‘w’ 뒤에 각각 ‘ㅓ’와 ‘ㅗ’가 결합한 소리가 됨

예 금괴[금괴/금궤], 참외[차외/차궤], 최근[최:근/궤:근]

↳ ‘ㅛ’의 이중 모음 발음이 ‘궤’와 같기 때문에 ‘ㅛ’와 ‘ㅜ’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면 이중 모음의 종류는 총 12개가 됨

이중 모음이 단모음으로 발음되는 경우

2026학년도 EBS

-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쩌, 처’는 [저, 찌, 처]로 발음함
예 예뻐졌어[예:뻐저써], 가져[가저], 찌[찌], 다쳐[다쳐]
- ‘예, 례’ 이외의 ‘ㅓ’는 [ㅓ]로도 발음함
예 혜택[혜:택/혜:택], 계시다[계:시다/계:시다], 연계[연계/연계]
-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ㅛ’는 [ㅛ]로 발음함
예 희망[히망], 무늬[무니], 띄어쓰기[띠어쓰기/띠여쓰기], 티니[티:니]
-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ㅛ]로, 조사 ‘의’는 [ㅓ]로 발음함도 허용함
예 우리의[우리의/우리에], 동의[동의/동이], 강의의[강:의의/강:이에]

2 음절과 음절의 구성

(1) **음절**: 독립해서 발음할 수 있는 최소 단위로, 대개 몇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짐

↳ 음절은 표기가 아닌 발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예** 음악[으막]의 음절 '[으]'와 '[막]'

(2) 음절의 구성

초성	음절의 구성에서 처음 소리인 자음 예 '감'의 'ㄱ'
중성	음절의 구성에서 중간 소리인 모음 예 '감'의 'ㅏ'
종성	음절의 구성에서 마지막 소리인 자음 예 '감'의 'ㅁ'

음절의 유형과 구조

EBS P.015, P.056

• 음절의 유형

모음 (중성으로만 이루어진 음절)	자음 + 모음 (초성과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모음 + 자음 (중성과 종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자음 + 모음 + 자음 (초성, 중성, 종성이 모두 포함된 음절)
아, 으, 야, 에, 와, 워, 의	노, 과, 따, 묘, 지, 소, 사, 시, 회, 체	암, 울, 읊, 약, 연, 염, 원, 왕, 욱, 웅	형, 복, 쌀, 막, 검, 손, 진, 결, 행, 성, 품, 금, 합

↳ 국어에서 음절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중성에 어떤 모음이 오는지에 따라 다시 세분할 수 있음

예 암, 울, 읊: 단모음 + 자음

약, 연, 염, 원, 왕, 욱, 웅: 반모음 + 단모음 + 자음

• 음절의 구조

- 초성에 된소리가 올 수 있음 **예** 따, 쌀
- 초성에 둘 이상의 자음이 쓰일 수는 없음
- 어떤 음절이든지 반드시 중성은 있어야 함
- 중성에는 자음은 올 수 없고 모음만 올 수 있음
- 하나의 음운으로만 음절이 이루어지기도 함 **예** 아, 으
- 이중 모음으로만 음절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음 **예** 야, 워

1 연계 교재 지문 요약하기

비표준 발음과 표준어로 인정되는 어형

EBS  P.203

1문단

- 국어의 표준 발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음운 변동 중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는 음운 규칙의 적용과 연음 현상의 순서가 중요할 때가 있음

(1)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연음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적용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할 조건이 되는 단어의 마지막 음절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 예 낮 + 잠 → [난잠], 값 + -고 → [깁꼬]
연음만 일어남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할 조건이 되는 단어의 마지막 음절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올 때 예 무릎 + 을 → [무르플], 안팎 + 에 → [안파께]: 연음부터 되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못함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 후 연음이 일어남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할 조건이 되는 단어의 마지막 음절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 예 옆 + 얼굴 → [여벌굴]

(2) 자음군 단순화와 연음

자음군 단순화만 적용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할 조건이 되는 단어의 마지막 음절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 예 낮 + 두리 → [넉두리], 값 + 도 → [깁또], 없 + -고 → [업꼬]
연음만 일어남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할 조건이 되는 단어의 마지막 음절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올 때 예 진흙 + 이 → [진흘기], 값 + 을 → [깁쓸], 없 + -어 → [업썸]
자음군 단순화 적용 후 연음이 일어남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할 조건이 되는 단어의 마지막 음절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 예 진흙 + 아래 → [진흐가래], 값 + 어치 → [가버치]

2문단

- 국어 언중은 비표준 발음을 하기도 함 예 무릎을[무르플/*무르블], 닭이[달기/*다기], 부엌에[부어케/*부어게]
- 비표준 발음은 음운 규칙의 적용 순서 잘못으로만 설명되지는 않음

표준 발음	음운 규칙의 순서를 잘못 적용한 경우	음운 규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
빛을[비출]	빛을 → 빔을 → [비들]	[비슬]
발을[바틀]	발을 → 받을 → [바들]	[바슬], [바출]
꽃에[꼬체]	꽃에 → 꼰에 → [꼬데]	[꼬세]

3문단

- ‘ㅈ’이나 ‘ㅌ’을 [ㅅ]으로 발음하거나,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는 환경에서 ‘ㅌ’을 [ㄷ]으로 발음하게 하는 음운 변동 규칙은 없으므로, 빛을[*비슬]이나 발을[*바슬/*바출] 등의 비표준 발음은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음
- 비표준 발음은 현대 국어에서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 말들(‘빋’, ‘봣’, ‘봣’ 등)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2 더 읽어 볼 만한 지문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

2024학년도 5

- 형태소의 교체: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다른 형태로 실현되는 것
 - 예 '맛'이라는 형태소는 '맛이[마시]', '맛도[만또]', '맛만[만만]'과 같이 실현되어 각각 '맛', '만', '만'이라는 형태로 나타남
 - ↳ 교체에 의해 달리 실현된 형태들을 이형태라고 함
- 이형태 교체의 양상은 교체의 동기가 음운론적 제약(음소의 종류나 음소들의 결합을 제한하는 제약 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나뉨

자동적 교체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해 예외 없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교체 예 '(마음을) 짚는[짐는]'에서 어간 '짚-'이 '짐-'이라는 형태로 실현됨 ↳ 종성에 자음 'ㅍ'이 올 수 없다는 음운론적 제약과 비음 'ㄴ' 앞에 평파열음 'ㅂ'이 연속해서 결합할 수 없다는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해 형태소의 형태가 교체됨 '(땅에) 묻고[문꼬]'에서 어미 '-고'가 'ㄷ' 뒤에서 '-꼬'라는 형태로 실현됨 ↳ 평파열음 'ㄷ' 뒤에 예사소리 'ㄱ'이 연속해서 결합할 수 없다는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해 형태소의 형태가 교체됨 '잇대[알.따]', '잇는[인.는]'에서 어간 '잇-'이 각각 '알-'과 '인-'이라는 형태로 실현됨 ↳ 각각 종성에 자음 'ㅅ'이 올 수 없다는 음운론적 제약과 비음 'ㄴ' 앞에 평파열음 'ㄷ'이 연속해서 결합할 수 없다는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해 형태소의 형태가 교체됨
비자동적 교체	음운론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일어나는 교체 예 '(신발을) 신고[신.꼬]'에서 어미 '-고'가 'ㄴ' 뒤에서 '-꼬'라는 형태로 실현됨 ↳ '산과[산과] 바다'에서 'ㄴ' 뒤에 'ㄱ'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통해 'ㄴ' 뒤에 'ㄱ'이 연속해서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음운론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두 눈을) 감자[감.짜]'에서 어미 '-자'가 'ㄹ' 뒤에서 '-짜'라는 형태로 실현됨 ↳ '감조차[감:조차] 없다'에서 'ㄹ' 뒤에 'ㅈ'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통해 'ㄹ' 뒤에 'ㅈ'이 연속해서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음운론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꾸중을) 들어서[드려서]'에서 어간 '들-'의 'ㄷ'이 모음 앞에서 'ㄹ'로 교체되어 '들-'이라는 형태로 실현됨 ↳ '땅이 굳어서[구더서]'에서 어간 '굳-'이 모음 'ㅏ' 앞에서 교체되지 않고 연음되는 것을 통해 'ㄷ' 뒤에 'ㅏ'가 연속해서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음운론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마음씨가) 고우니[고우니]'에서 어간 '곱-'의 'ㅂ'이 모음 'ㅡ' 앞에서 'ㄱ'로 교체되어 '고우-'라는 형태로 실현됨 ↳ '손가락이 곱으니[고브니]'에서 어간 '곱-'이 모음 'ㅡ' 앞에서 교체되지 않고 연음되는 것을 통해 'ㅂ' 뒤에 'ㅡ'가 연속해서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음운론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1 다음 설명이 적절하면 ☐, 적절하지 않으면 ☐를 고르시오.

- 01.** ‘땀-땡’과 ‘말-알’은 ‘ㅁ’, ‘ㅇ’에 의해 뜻이 구별되므로 최소 대립쌍에 해당한다. ☐ ☐
- 02.** ‘눈, 돌, 숨, 총’의 음절 끝의 자음은 모두 예사소리에 해당한다. ☐ ☐
- 03.** ‘ㅢ, ㅟ’는 원칙적으로 이중 모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모음으로 발음되기도 한다. ☐ ☐
- 04.** 현대 국어의 음절 유형에서, 초성 또는 종성이 없는 음절도 있다. ☐ ☐
- 05.** 현대 국어의 음절 유형에서, 초성에는 최대 두 개의 자음이 올 수 있다. ☐ ☐
- 06.** 음절 끝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 발음된다. ☐ ☐
- 07.** ‘밖이[바끼]’와 ‘앞을[아플]’은 앞 음절의 끝 자음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그대로 이어져 소리나는 것으로, 음운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08.** ‘닫히다’는 받침 ‘ㄷ’ 뒤에 실질 형태소 ‘-히-’가 결합되어 [다치다]로 발음된다. ☐ ☐
- 09.** ‘쪽문[쫘문]’은 ‘ㄱ’이 ‘ㅁ’의 영향을 받아 ‘ㅁ’과 조음 방법이 동일한 ‘ㅇ’으로 바뀌므로 동화에 해당한다. ☐ ☐
- 10.** ‘많아’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마:나]로 발음된다. ☐ ☐
- 11.** ‘알고[안코]’에서는 탈락이 1번, 교체가 1번 일어난다. ☐ ☐
- 12.** ‘술잎[술립]’에서는 첨가가 1번, 교체가 1번 일어난다. ☐ ☐

2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단어들의 실제 발음과 적용된 음운 변동의 유형을 모두 쓰시오.

<보기>	
막일	→ [망닐], 음운 변동의 유형: (첨가, 교체)

13. 발달 → [], 음운 변동의 유형: ()

14. 닳지 → [], 음운 변동의 유형: ()

15. 쌓이다 → [], 음운 변동의 유형: ()

16. 발아구 → [], 음운 변동의 유형: ()

17. 반듯한 → [], 음운 변동의 유형: ()

18. 낫두리 → [], 음운 변동의 유형: ()

19. 닳하고 → [], 음운 변동의 유형: ()

20. 넓적하다 → [], 음운 변동의 유형: ()

3 <보기>를 참고하여, 괄호 안에 들어갈 음운 변동 현상과 그 유형을 쓰시오.

<보기>	
맑다	→ '맑따' → [막따] (된소리되기 / 교체) (자음군 단순화 / 탈락)

21. 넓지 → '넙찌' → [넙찌]
(/) (/)

22. 물약 → '물낙' → [물락]
(/) (/)

23. 읊네 → '읊네' → '읍네' → [읍네]
(/) (/) (/)

24. 늦어름 → '늦녀름' → '늘녀름' → [늘녀름]
(/) (/) (/)

5일 간의 문법
5일 간의 문법
5일 간의 문법



형태소와 단어

STE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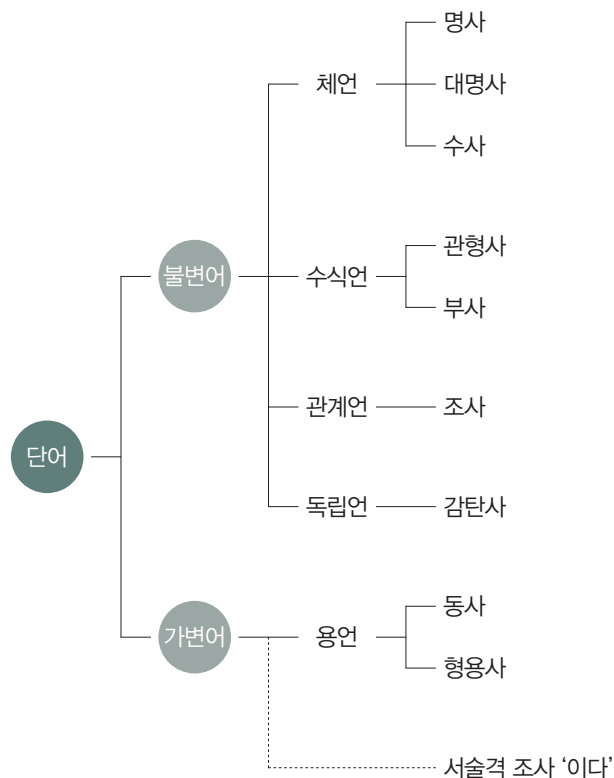
연계 교재 개념 정리

1 단어의 분류

(1) **품사**: 단어를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 형태 · 기능 · 의미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 국어의 품사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가 있음

(2) 품사 분류의 기준

형태	단어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뉨 예 가변어: 먹다(먹고, 먹니, 먹어서, 먹습니다 ...) , 예쁘다(예쁘고, 예쁘니, 예뻐서, 예쁩니다 ...) , 이다(이고, 이니, 이어서, 입니다 ...) 등 불변어: 하늘, 우리, 하나, 새, 무척, 이/가, 아이고 등
기능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으로 분류함
의미	단어 부류가 어떤 의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로 분류함



1) **체언**: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의 역할을 하는 단어로,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조사와 결합할 수 있음

명사	•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 사용 범위에 따라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들에 두루 쓰이는 보통 명사와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만 쓰이는 고유 명사로 나뉨 예 보통 명사: 사람, 도시, 산, 궁궐, 책, 평화 ... / 고유 명사: 이순신, 서울, 한라산, 경복궁 ... • 자립 유무에 따라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명사와 홀로 쓰일 수 없어 다른 말(관형어)에 기대어 쓰이는 의존 명사로 나뉨 예 자립 명사: 바다, 마을 ... / 의존 명사: 것, 때문 ...
대명사	•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 가리키는 단어 •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와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로 나뉨 예 지시 대명사: 이것, 저기, 거기, 그곳, 여기 ... / 인칭 대명사: 나, 너, 그, 우리 ... • 모르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따위를 가리키는 미지칭, 정해지지 아니한 사람, 물건, 방향, 장소 따위를 가리키는 부정칭,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가리키는 재귀칭이 있음 예 미지칭: 이번에는 무엇을 받을까? / 동생은 어디에 있어? 부정칭: 아직 아무도 안 왔다. / 누구나 와도 된다. / 어디나 마찬가지이다. 재귀칭: 동생은 <u>자</u>기가 가겠다고 나섰다. / 할머니께서는 <u>당</u>신이 직접 가시겠다고 하셨다.
수사	•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 •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와 순서(차례)를 나타내는 서수사가 있음 예 양수사: 하나, 둘, 셋, 일(一), 이(二), 삼(三) ... / 서수사: 첫째, 둘째 ... • 정확한 수와 대략의 수가 있음 예 정확한 수: 하나, 둘, 셋, 일, 이, 삼, 첫째, 둘째 ... / 대략의 수: 한둘, 서넛, 너댓, 한두째, 두세째 ...

동일한 형태의 미지칭 대명사와 부정칭 대명사

EBS P.018 / 원 P.100

• 미지칭과 부정칭은 동일한 형태로 쓰일 때가 있음

미지칭 대명사	• 모르는 대상을 알기 위해 물을 때 쓰임 예 누구와 함께 가니?: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함 이 사진 어디서 찍은 거야?: 장소가 어디인지 알지 못함 (여행 사진을 찍은 장소를 물어보며)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 장소가 어디인지 알지 못함
부정칭 대명사	• 어떤 대상을 불특정적으로 말할 때, 꼭 집어서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을 때 쓰임 예 누구나 갈 수 있다.: 특정한 대상을 지목하지 않아 불분명함 어디에나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 거 같아.: 특정한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 불분명함

체언의 특성

EBS P.061 / 원 P.091

• 체언은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음

예 엄마는 매끼를 새 밥으로 차려 주셨었다.

• 체언은 용언의 관형사형의 수식을 받을 수 있음

예 그는 게으른 나를 꾸짖었다.: 대명사 '나'가 어간 '게으르-'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관형사절의 수식을 받음

• 체언은 다른 체언을 수식할 수 있음

예 친구 동생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하였다.: 명사 '동생'이 명사 '친구'의 수식을 받음

• 체언은 조사와 결합하여 문장 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음

예 우리 집 첫째는 밝고 긍정적인 편이다.: '긍정적인'은 명사 '긍정적'에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간 '이-'와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여 안긴문장에서는 서술어로, 안은문장에서는 관형어로 기능함

5일 간의 문법
5일 간의 문법
5일 간의 문법

정답과
해설

STEP 3 개념 완성 홀로서기

문제 P.080

01. ✕

문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필수 성분으로, 주성분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이다.

TIP 서술어에 따라서 반드시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사어가 주성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야. 기본적으로 부사어는 주성분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속 성분에 해당하지.

02. ✕

‘이 옷을 입어 보아라.’에서 서술어 ‘입어 보아라’는 본용언 ‘입다’와 보조 용언 ‘보다’가 결합한 것으로, 두 개의 용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03. ◻

‘저기서 걸어오는 사람이 내 친구 비슷하다.’의 서술어 ‘비슷하다’는 주어(사람이) 외에 부사어(내 친구)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참고로 부사어 ‘내 친구’에 부사격 조사 ‘와’가 생략되었다.

04. ✕

‘칼국수 반죽이 돼서 물을 더 넣었다.’의 서술어 ‘되다’는 주어(반죽이)만을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05. ✕

문장에서 서술어의 동작이나 작용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을 목적어라고 한다. 주어는 문장에서 동작, 상태, 성질의 주체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이다.

06. ◻

관형어는 부속 성분이지만, 수식을 받는 체언이 의존 명사일 경우 반드시 그 앞에 위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우산은 언니의 것이다.’에서 의존 명사 ‘것’은 앞말에 기대어 쓰이므로, 의존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 ‘언니의’를 생략하거나 위치를 바꾸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07. ✕

‘동생이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들어왔다.’에서 ‘고개를 숙인 채’는 의존 명사 ‘채’와 그 앞에 오는 관형어 ‘고개를 숙인’이 함께 쓰여 서술어 ‘들어왔다’를 수식한다.

08. ✕

‘바로 여기가 내가 찾던 곳이다.’에서 부사어 ‘바로’는 체언 ‘여기’를 수식한다.

TIP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지만 관형사, 다른 부사, 체언 또는 절이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해. 일부 체언 앞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어로 사용되는 부사로는 ‘바로, 오직, 겨우’ 등이 있어.

09. ✕

두 절이 연결 어미에 의하여 결합된 문장을 이어진문장이라고 한다. 안은문장은 한 절이 다른 절을 문장 성분의 일부로서 안고 있는 문장을 말한다.

10. ✕

‘동생이 여행을 다녀오고 사람이 달라졌다.’의 ‘-고’는 앞뒤 절의 두 사실 간에 계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이다.

TIP 앞 절과 뒤 절이 단순한 ‘나열, 대조’ 등의 대등한 관계에 있다면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꿔 쓸 수 있어. 하지만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원인·이유, 배경 상황, 조건·가정, 의도·목적, 양보, 중단·전환, 정도의 심화’ 등 종속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면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꿔 썼을 때 어색하거나 비문이 돼.

11. ◻

‘우리는 형이 옳았음을 깨달았다.’에서 안긴절(명사절) ‘형이 옳았음’은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해 안은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12. ◻

‘나는 안경을 쓴 채로 깜빡 잠에 빠졌다.’에서 안긴절(관형사절) ‘안경을 쓴’의 주어는 ‘나’로, 안은문장의 주어와 동일하다.

문장	높임 표현 분석
13. 어머니가 할머니께 선물을 드리셨어.	부사격 조사 '께', 특수 어휘 '드리다', 선어말 어미 '-시-', 종결 어미 '-어'
14. 할아버지께서 진수를 칭찬해 주셨어요.	주격 조사 '께서', 선어말 어미 '-시-', 보조사 '요', 종결 어미 '-어요'(어미 '-어' + 보조사 '요')
15. 아버지께서 할머니께 여쭙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격 조사 '께서', 부사격 조사 '께', 특수 어휘 '여쭙다', '말씀', 선어말 어미 '-시-', 종결 어미 '-비니다'

문장	시간 표현 분석	시제
16. 형이 나를 <u>막</u> 았다.	선어말 어미 '-았-'	과거 시제
17. 그는 내일 <u>도착</u> 할 것이다.	'-리 것아-'(관형사형 어미 '-리' + 의존 명사 '것')	미래 시제
18. 저것은 제가 <u>읽</u> 은 책입니다.	관형사형 어미 '-은'	과거 시제
19. 한 시간 뒤에 이곳에서 <u>뵈</u> 겠습니다.	선어말 어미 '-겠-'	미래 시제
20. 어두운 하늘에서 아직도 보슬비가 <u>내</u> 린다.	선어말 어미 '-ㄴ-'	현재 시제
21. 그곳에 <u>사는</u>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준다고?	관형사형 어미 '-는'	현재 시제

문장	문법 요소	실현 방식
22. 언니가 나에게 죽을 먹였다.	사동 표현	용언 어근 + 사동 접미사 '-이-'
23.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게 한다.	사동 표현	용언 어간 + '-게 하다'
24. 그는 윗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다.	피동 표현	명사 어근 + 피동 접미사 '-받-'
25. 애써 심은 잔디가 여기저기 뜯긴 상태였다.	피동 표현	용언 어근 + 피동 접미사 '-기-'
26. 아이에게 연필을 겨우 잡혔지만 아이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사동 표현	용언 어근 + 사동 접미사 '-히-'

정가 18,000원



ISBN 979-11-94350-56-9